**출1315 Note**

**◆용어 : 되사다, 몸값치르고 되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다’,**

**‘가알’**

**1. 사전적 의의**

**◇ 몸값을 치르고 되사다, 몸값을 치러 자유케 하다**

1) 히브리어 : 6299 [파다:끊다,몸값을 받고 석방하다,풀어주다,보존하다,전혀,구출하다,어떻게든,속전(贖錢),구속(救贖)하다,구(求)해내다,확실히]

2) 헬라어 : 629 [아폴뤼트로씨스:아포(분리)와 뤼트론(풀어주는 어떤 것,몸값)의 합성어,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

**◇ 되사다, 속전(贖錢)하다**

1) 히브리어 : 1350 [가알:(혈족관계에 대한 동양법을 따라)무르다,(친척의 소유를 다시 사든지, 그의 과부와 결혼하는 등에 의하여)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 아무래도,전혀, 무르는 자,복수자,구해내다,(일가나 일가가 될 의무를 행하는)친척,사다,배상하다,구속하다]

2) 헬라어 : 3085 [뤼트로씨스:뤼트로오(속전하다,구속하다)에서 유래,구속함,속죄(贖罪)한,구속(救贖),속죄]

**◇ 몸값, 대속물(ransom)**

1) 히브리어 : 3724 [코페르:카파르(덮다,속죄하다,달래다,지워버리다,가라앉히다,제거하다)에서 유래,덮개,마을,(칠하기 위한)역청,속전,뇌물,몸값,생명의 값,만족,총액,(염색하는데 사용되는)해나 식물]

2) 헬라어 : 3083 [뤼트론:뤼오(풀어주다,깨뜨리다,융해하다)에서 유래,풀어주는 어떤 것,속전(贖錢)의 값,몸값,속죄/히브리어 코페르:덮개,역청,속전,몸값]

헬라어 : 487 [안틸뤼트론:안티(반대하여,대신에,대치)와 뤼트론(풀어주는 어떤 것,몸값)에서 유래,구속,대속물,배상금,속전)

**2. 위의 용어들의 용법 살펴보기**

**◇ 히브리어 ‘파다** (**몸값을 치르고 되사다)’와 ‘가알(되사다,무르다)’의 용례**

**1)파다의 용례**

하나님의 인간의 구속과 관련되어 주로 사용됨

몸값(댓가,희생) : 구약의 번제물등(임시적인 덮개), 예수님의 보혈(영구한 댓가)

동물이나 사람(포로, 노예)의 법적 자유가 거래 목적

사람이나 동물의 초태생의 대속 용어로 쓰임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

**2)가알의 용례**

주로 친척관계에서 발생하는 근친의 특권이나 의무를 되사거나 무르는데에 사용 (고엘: 무르는자, 되사는 자)

집이나 재산 등의 물질적인 것의 되삼

친족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복수

**◇** 저는 “몸값”이나 “되사다” 라는 용어가 나올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적에 전쟁을 하다가 한 나라의 왕이 사로잡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면, 그 왕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에 왕의 몸값을 지불해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귀족이나 일반인이 큰 죄를 지어 노예로서 팔려가, 노예선 등에서 일하면(영화 벤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를 되사기(되찾기) 위하여,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구약) 또는 믿는 자(신약)를 되사서(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값”이라 하면, 우리의 육신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사탄에게 묶여있는 우리의 영(靈)을 가르킵니다. 즉 우리의 영을 되사는 것입니다.

**◇**  대속

아들이 빚을 지면, 아버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죄를 지어 매질을 당하게 되면, 그 집의 종이 대신해서 매를 맞아도 됩니다, 방원이가 군사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죄를 짓자, 이성계는 방원이 집의 집사를 대신 매질하도록 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갚으신 속전(贖錢) 곧 몸값은 하도 커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기에, 과거의 죄값도, 현재의 죄값도, 미래의 죄값도 감당하기에 충분한, 영원히 지속되는 속전(贖錢)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처럼 매일 속죄제를 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참고가 되실지 몰라, 인터넷에서 퍼온 글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우신 교회’에서 퍼온 글**

**가알과 파다(속량) / la'G:(1350, 가알)**

되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가알(동사)은 기본어근이며,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redeem, 근친 역할(권리, 의무)을 행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어근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어근과 매우 유사한 어근 파다([d"P; , 6308): 구속하다 redeem) 사이의 한 가지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가알(la'G: , 1350)의 강조점이 근친의 특권이나 의무인 속량에 있다는 데에 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00회 이상 나오며, 칼형과 니팔형으로만 사용되었다.

가알은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자기의 친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포함하는 4개의 기본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a) 첫째로, 가알은 오경의 법령에서 궁핍한 때에 판 밭을 되사는 것이나 가난할 때 자신을 판 이스라엘인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런 매입과 무르는 일은 근친의 의무였다(레 25:25-54).

레 25:25에서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라고 하였다. 만약에 자신이 부유하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무를' 것이다(레 25:26).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동족 이스라엘인에게나(레 25:39)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타국인(레 25:47)에게 팔기도 하였다.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척 - 형제, 삼촌, 사촌들, 가족의 혈족 - 에게 있었다(레 25:25, 레 25:48, 레 25:49).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속량한 redeemed 자(혈연자)는 '근족 - 구속자'로 알려져 있었다.(참조: EDBW).

가난한 자의 구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실례는 수혼법에 대한 구약성경의 증거가 가장 광범위하게 미치는 룻기에 있는 것 같다. 신 25:5-10에 의하면, 남편의 형제는 후사 없는 과부를 취하여서 씨를 영속시키고, 남자 후손과 결부되어 있는 땅의 계승을 보증해야 했다. 여기에서 근친은 야밤이라고 불리어진다. 어근 가알은 사용되지 않는다.

룻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것들, 즉 밭과 수혼이 언급된다. 근친은 밭을 사는 것을 기꺼워했지만, 룻과 결혼하는 것은 기꺼워하지 않았다.

문제의 요지는 나오미가 가난하여 밭을 팔 수 밖에 없었을 때, 근친은 그녀를 위해 그 밭을 되사야 했다는 데 있다. 그는 후사 없는 형제의 과부를 위해서 이 일을 기꺼이 했다. 그가 룻과 결혼하여 그들의 기업을 지속시킬 자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는 거부하였으며 보아스가 개입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것, 즉 친족과 수혼은 구별되어야 한다. 고엘(구속자)이란 단어는 후자의 제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레게트(Leggett)는 룻기에 구속적이고 메시야적인 유형론의 주제가 들어있다고 보았다. "고엘(goel)로서의 보아스의 행동들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예시되어 있음을 보았다. 보아스가 구속의 권리를 소유하였으면서도 분명히 룻을 위하여 개입할 의무는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다. 보아스가 이 가난한 과부들의 곤경을 보았을 때 그의 생애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구원하러 왔던 것과 같이 메시야의 경우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지배되고 또한 그가 가난한 자들과 억압 받는 자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었다(시 72:2, 시 72:4, 시 72:12, 시 72:13, 사 11:4).

(b) 둘째로, 가알은 재산이나 여호와께 바쳐진 희생제물 아닌 짐승들을 무르는 것, 혹은 부정한 짐승들의 첫 소산을 무르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레 27:11-33). 이 사상은 인간이 교환물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속전은 부정직한 교환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추가 몫이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에 무르는 자는 친족이 아니라 재산의 주인이었다.

(c) 셋째로, 가알은 살해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피의 보수자"(RSV '보복자' revenger)가 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며, 칼 분사 고엘로 나타난다. 고엘은 구속자이며, 이 구속자는 '피의 보수자'로 불리우는데, 그의 임무는 자신의 친척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신 19:6). 이 사상은 가까운 친족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임에 틀림없다. 돈을 지불함으로서 집을 재매입하거나 노예를 속량할 수 있는 것처럼, 친족의 잃어버린 생명은 마땅히 살인자의 그에 상응하는 생명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친족은 피의 보수자이다. 이런 사형 제도는 피비린내 나는 숙원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엘은 죄없는 사형 집행인이었으며 따라서 살해되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보수자'라는 의미로 12회 나온다(민 35:12, 민 35:19, 민 35:21, 민 35:24, 민 35:25, 민 35:27, 신 19:6, 신 19:12, 수 20:3, 수 20:5, 수 20:9).(참조: R. L. Harris).

(d) 넷째로, 가알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구속하시는 행위'에 대해 사용되었다.

출 6:6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라고 약속하신다(출 6:6, 참조: 시 77:15).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출 15:13).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시 78:35).

이사야서에는 '구속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여 13회 나오는데 모두 사 41- 63장에서 사용되었다. 가알은 하나님에 대해 9회 사용되었으며, 사 43:1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가알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사 51:10, 사 63:9)과 바벨론의 포로생활로부터의 구원(사 48:20, 사 52:3, 사 52:9, 사 62:12)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사 41:14)이며 '너희의 왕 이스라엘의 창조주'(사 43:14, 사 43:15)이며 '만군의 여호와'(사 44:6)이며 '야곱의 전능자'(사 49:26)이다. 그의 구원에 참예하는 자는 '구속 받은 자'이다(사 35:9).

시편에는 종종 영적인 구원이 육적인 구원과 병행되어 나온다. 예를 들면 시 69:18.,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시 103:2, 시 103:4.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윤택을 잊지 말찌어다...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이 그러하다(참조: EDBW).

유명한 구절, 욥 19:25에서 고엘이란 단어는 흠정역성경에서 '구속자' redeemer로 번역되며 어떤 이들은 이 단어가 속죄의 사역을 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히브리어 파다에 의해 더욱 특징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제 욥 19:25에 나오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욥을 죽음의 먼지에서 구속할 친구이자 친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더욱 정확하게 관련된다. 욥 19:26의 난해한 어구, "이 가죽...후에"는 다른 모음들과 함께 "내가 깨어난 후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NIV 각주와 욥 14:12-14을 참조하라. 욥 14:12-14에서 부활에 관한 욥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돌아보시며 욥은 나무처럼 제 2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의 소망에 의해 절정에 달하게 된다 - 욥 14:14의 할리파는 욥 14:7의 할랍에 대한 응답이다). 어쨌든 욥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의 고엘이신 하나님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참조: R. L. Harris).

​**속량hd:P;(6299, 파다)**

대(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파다(동사)는 기본어근이며, '대(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를 의미한다.

파다의 기본의미는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이 어근은 앗수르어에서 '아끼다, 용서하다' spare를, 우가리트어에서 '속량하다' ransom을 의미한다(UT 19: no. 2013).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59회 나온다.

(a) 파다의 의미의 발전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래 이 단어는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된 상업적인 용어였다. 그러나 삼상 14:15을 보면 이러한 금전적 개념이 이 단어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울이 요나단의 본의 아닌 잘못에 대한 대가로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으나 "백성이...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셨다". 노예 상태란 '속량'(ransom)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출 21:8과 레 19:20에서 결혼을 위한 노예 소녀의 속량을 언급하고 있다.

(b) 파다는 초태생에 관한 율법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태생을 죽이는 대가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다(출 4:23, 출 12:29). 하나님께서는 이로서 이스라엘의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태생의 생명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소유하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사건은 여호와께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태생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영구히 기념되었다(출 13:12).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예배의식을 집행할 목적으로 레위 족속을 구별시키시고(민 3:40 이하), 백성들의 가축대신 레위인들의 가축을 자기의 몫으로 성별하셨다(민 3:44 이하).

레위인들의 수를 초과한 장자들의 수는 따라서 1인당 5세겔의 값으로 속량 되었으며 이 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c) 후대에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들의 초태생은 속량 받아야 했지만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속량될 수 없었다. 이는 그것들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었으므로 희생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속하든지 도살되어야 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 즉 소나 양, 염소는 대속될 수 없었다(출 13:11-16, 출 34:19-20, 민 18:8-32).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바쳐진", 즉 금지를 당해 사람이 소유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물이나 사람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였으므로 속량될 수 없었다(레 27:28-29).

(d) 대속에 관한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의 초태생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의 초태생이었으며(출 4:22) 여호와의 구속을 받았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신 15:15, 신 24:18).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며 속량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 수세기를 통해 히브리 사상의 특징을 형성시켰다(삼하 7:23, 시 78:42, 시 111:9, 미 6:4). 이사야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대속으로 보기까지 하였다(사 29:22, 참조: 벧전 1:18). 마찬가지로 그는 시온의 장래 구원을 그와 동일한 대속적 행위의 결과로 보았다(사 35:10, 사 51:11, 슥 10:8).

(e) 대속의 개념은 '구원하다'는 의미로 나아간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다른 어려움으로부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언할 수 있었고(삼하 4:9, 왕상 1:29), 따라서 그는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시 25:22).

시편은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시 26:11, 시 31:5, 시 34:22, 시 44:26, 시 71:23) 또는 인간의 압제로부터(시 55:18, 시 69:18, 참조: 욥 6:23) 생명을 구원 내지 구속하는 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이나 재난은 사망, 스올, "구덩이"다. 시편 기자는 시 49:8, 시 49:9에서 인간의 부적격성을 날카롭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능력은 한이 없다고 결론 짓는다(시 49:16).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은 부활이다.

(f) 파다는 오직 한번 죄나 불의로부터 해방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시 130:8).

이것은 새 언약의 완성된 계시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 불행히도 여기에 대한 강조가 기독교 구속 신학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게된 나머지, 구약성경은 물론 신약성경도 구속 또는 구원을 인간의 전체적 상황에 비추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복음을 대략 훑어 보기만 하여도 구원 개념에 있어서의 구약적 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BDB; Gesenius; W. B. Coker).

[때로는 다른 어근들이 파다 및 그 파생어들과 대등하게 사용된다. 특히 가알이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두 어근이 다 속전의 지불에 의한 대속과 관련이 되지만 가알은 근본적으로 가족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까닭에 친족으로서의 행위 개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다와 가알이 모두 호 13:14과 렘 31:11에서 대등어로 사용된 점과 레 27:27 등등에서 동의어로 쓰인 것은 두 단어의 중복적 의미를 예증해 준다. 또한 LXX에서 동사 뤼트로오를 99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45회를 어근 가알의 역어로, 43회를 어근 파다의 역어로 사용하였다.

단어 코페르는 때때로 시 49:8과 출 21: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다와 병행한다. 어근 카파르는 '달래다' appcase, '구속하다' make an atonement를 의미하며 코페르는 호의 또는 화해를 얻기 위해 드리는 속전을 뜻한다.

파다는 나찰(렘 15:21) 및 말라트(욥 6:23)와 대등 관계로 나타나는데 둘 다 '구원하다' to deliver를 의미한다. 사실상 파다는 때로 '구하다' to deliver로 번역된다(예를 들면 시 44:26[H17], 시 55:18[H19]). 왜냐하면 지불의 개념이 배후로 물러나고 해방에 강조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는 구속의 대가를 애굽의 초태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출 12:13) 반면 여타의 문맥에서는 속량의 대가에 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뚜렷이 부각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벧전 1:18-19). - W. B. Coker]. (p.1149\*).

**4. 네이버 까페 ‘구름하늘’에서 퍼온 글**

**대속물(ransom)**

도로 사기 위해 지불하는 값, 또는 어떤 의무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놓이게 하려고 지불하는 값.

“대속물”의 기본 사상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공의를 충족시키려고) 덮는 값이고, “구속”은 대속물이 지불된 결과로 달성된 놓임을 강조한다.

가장 의미 깊은 대속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이다.

이것으로 아담의 자손이 죄와 죽음에서 구출될 수 있게 되었다.

‘대속하다’, ‘구속하다’로 번역된 다양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용어들에는 대속하도록 즉 구속하도록 주어진 값, 가치 있는 것이라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사상이 깔려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교환이라는 사상뿐 아니라, 상응, 등가, 대신하는 것이라는 사상도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말하자면 하나가 다른 것을 위해 주어져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결과 사물의 균형을 맞춘다는 사상이다.(화해 참조)

**덮는 값**

히브리어 명사 코페르는 기본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타르로 덮어야 했다고 할 때처럼, ‘덮다’를 의미하는 동사 카파르에서 파생되었다(창 6:14),

하지만 카파르는 거의 언제나 죄를 덮거나 속함으로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명사 코페르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것 즉 대속의 값(몸값)을 가리킨다. (시 65:3; 78:38; 79:8, 9)

덮개란 그것이 덮는 대상과 상응한다. 그것은 (물건의 뚜껑, 이를테면, 계약의 궤의 “덮개”, 출 25:17-22) 형태 면에서 덮는 것일 수도 있고, (상해로 인한 손상을 덮는 지불금처럼) 가치 면에서 덮는 것일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는, 율법 계약 가운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공의의 균형을 맞추고 문제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희생과 제물을 규정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죄나(출 29:33-37; 레 16:6, 11) 여느 개인의 죄, 민족 전체의 죄를(레 1:4; 4:20, 26, 31, 35) 속하는 역할 즉 덮는 역할을 하였으며, 제단과 장막 둘레에 있는 백성의 죄에 대해 속죄를 행함으로 제단과 장막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레 16:16-20).

사실상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여 동물의 생명을 희생한 것이며, 그 피로 즉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의 제단에서 속죄를 한 것이다. (레 17:11. 히 9:13, 14; 10:1-4 비교)

“속죄일[욤 학킵푸림]”은 “대속물의 날”이라고 해도 매우 타당하다(레 23:26-28),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의 숭배가 의로운 하느님이 받아들이고 승인하시는 상태로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그런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다.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에 관한 법은 구속하는 교환의 의미를 잘 예시해 준다.

주인이 소를 풀어놓아서 소가 누군가를 들이받아 죽였다면, 주인이 죽임을 당함으로 피살된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였다. 하지만 주인이 일부러 또는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서, 재판관이 보기에 “대속물[코페르]”을 대신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인은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산정되어 지불되는 값은 그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자 잃은 생명을 위해 배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출 21:28-32. 신 19:21 비교)

한편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속물도 용납될 수 없고, 오로지 가해자 자신의 생명이어야만 피해자의 죽음을 덮을 수 있었다(민 35:31-33), 인구 조사에는 생명이 관련되었으므로, 필시 이런 이유로 그런 조사가 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는 각각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반 세겔(1.10달러)의 대속물(코페르)을 여호와께 바쳐야 하였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한 값이 적용되었다.(출 30:11-16.)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 공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느님에게도 불쾌한 일이므로, 대속물 즉 덮는 것은 분노를 피하거나 가라앉히는 가외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렘 18:23 비교. 또한 창 32:20 비교. 이 성구의 ‘감정을 풀다’는 카파르를 번역한 표현임)

하지만, 아내와 간음을 범한 사람에게 격분한 남편은 어떠한 “대속물[코페르]”도 거절한다. (잠 6:35)

이 용어는 또한 공의를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입막음 돈[코페르]”으로 뇌물이나 선물을 받고 눈앞에 드러난 범죄를 덮어 주려는 자들과 관련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삼상 12:3; 암 5:12.)

**구속(救贖) 즉 석방**

히브리어 동사 파다는 ‘구속하다’를 의미하며 관련 명사 피드욘은 “구속의 값”을 의미한다. (출 21:30)

이 용어들은 구속의 값으로 달성되는 놓임을 강조하는 한편, 카파르는 그 값의 질 또는 내용 그리고 공의의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그 효력을 강조한다.

종살이로부터(레 19:20; 신 7:8), 그 밖의 고난을 주거나 압제적인 상황으로부터(삼

하 4:9; 욥 6:23; 시 55:18), 죽음과 무덤으로부터의 석방 즉 구속(파다)이 있을 수 있다. (욥 33:28; 시 49:15)

자주 언급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이 되게 하신 일(신 9:26; 시 78:42),

그리고 여러 세기 후에 그들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유배 생활에서 구속하신 일이다. (사 35:10; 51:11; 렘 31:11, 12; 슥 10:8-10),

구속에도 값, 교환물이 관련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실 때, 그 값을 이집트가 지불하게 하신 것 같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느님의 “처음 난 자”였으며, 여호와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완고하게 거절하면 파라오의 처음 난 자와, 사람이든 짐승이든

온 이집트의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빼앗길 것이라고 파라오에게 경고하셨다. (출 4:21-23; 11:4-8)

그와 비슷하게 키루스가 바빌론을 함락하고 유대인을 유배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의 대가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대속물[코페르의 변화형]로 이집트를 내주고” 그들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쓰바”를 내주셨다. 그에 따라 페르시아 제국이 후에 그 지역들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 대신에 나라들이 주어졌다.’ (사 43:1-4)

이렇게 교환된 것은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코페르]이 되고[대속물 역할을 하고], 배신 행위를 하는 자는 올바른 자들을 대신하게 된다”는 영감받은 선언과 일치한다.(잠 21:18)

구속과 관련된 또 하나의 히브리어 용어는 가알이다. 이 단어는 주로 ‘되찾다, 회복시키다, 도로 사다’라는 사상을 전달한다. (렘 32:7, 8)

이 단어가 ‘파다’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호세아 13:14에서 그 단어와 병용되어 있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스올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고[파다의 변화형] 죽음에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가알의 변화형] 것이다.” (시 69:18 비교)

가알은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 자신을 도로 사거나 되찾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또는 원래의 주인이나 판 사람 자신이 되찾거나 도로 살 권리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엘이라 불리는 가까운 친척은 “도로 살 사람”(룻 2:20; 3:9, 13)이거나, 살인이 관련되었을 경우 “피의 복수자”였다.(민 35:12)

율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져서 상속 토지나 도시 내의 주택을 팔거나 심지어 자신을 종으로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그에게 가까운 친족인 도로 살 사람” 즉 고엘은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도로 살[가알]’ 권리가 있었으며, 판 사람 자신이 자금이 허락될 경우 스스로 자신을 도로 살 수도 있었다. (레25:23-27, 29-34, 47-49. 룻 4:1-15 비교)

어떤 사람이 집이나 밭을 서원 제물로 하느님께 바치기로 한 다음 그것을 도로 사고자 한다면, 그 재산에 매겨진 산정 가치에 오분의 일을 더한 값을 지불해야 하였다. (레 27:14-19)

하지만 ‘멸망에 바쳐진’ 것은 어느 것으로도 교환할 수 없었다.(레 27:28, 29.)

**살인의 경우**

살인자에게는 지정된 도피 도시 내의 신성한 곳이 허용되지 않았고, 재판관들은 사건을 청취한 뒤 그를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 즉 “피의 복수자[고엘]”에게 넘겨주어 살인자를 죽이게 하였다.

살인자에게는 “대속물[코페르]”이 허용되지 않았고, 도로 살 권리를 지닌 가까운 친척이 죽은 친족의 생명을 되찾거나 회복시킬 수 없었으므로, 자기 친족의 생명을 살인으로 앗아 간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민 35:9-32; 신 19:1-13.)

**언제나 물질적인 값만은 아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셨다’(파다) 즉 ‘되찾으셨다’(가알). (출 6:6; 사 51:10, 11)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팔아 악한 일을 행하므로’(왕둘 17:16, 17) 여호와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을 적들의 손에 파셨다.’ (신 32:30; 삿 2:14; 3:8; 10:7; 삼상 12:9)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분은 그들을 고난에서 또는 유배에서 도로 사심으로 즉 되찾으심으로(시 107:2, 3; 사 35:9, 10; 미 4:10) 고엘—그 민족을 배우자로 삼은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친족인 도로 살 자—로서의 일을 이행하셨다. (사 43:1, 14; 48:20; 49:26; 50:1, 2; 54:5-7)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파실 때’ 이교 나라들로부터 어떤 물질적 보상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이 받으신 대가라면 자신의 공의가 충족된 것과, 반역하고 불경을 나타낸 그들을 시정하고 징계하려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었다.(사 48:17, 18, 비교.)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도로 사시는 일’에는 물질적인 대가가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바빌론에 유배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로 사셨을 때, 키루스는 물질적 보상 없이 그들을 기꺼이 해방시켜 주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악의적으로 대한 압제적인 나라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때에 압제자들에게는 값을 요구하여 그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시 106:10, 11; 사 41:11-14; 49:26 비교)

그분의 백성은 이교 나라들에 팔렸을 때 자기들을 노예로 삼은 자들에게서 진정한 유익이나 구제라는 면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거저” 팔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포획자들에게 결산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팔”의 능력으로 도로 사는 일을 하셨다.(사 52:3-10; 시 77:14, 15.)

그러므로 고엘로서 여호와의 역할에는 자신의 종들에게 행해진 그릇된 일에 대해 복수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고난을 구실로 삼아 그분을 모욕한 자들이 그분의 이름에 돌린 비난이 깨끗이 씻겨졌다.(시 78:35; 사 59:15-20; 63:3-6, 9)

그 민족과 개개인 모두의 위대한 친척이자 구속자로서 그분은 그들의 “소송”을 처리하여 공의를 이루셨다.(시 119:153, 154; 렘 50:33, 34; 애 3:58-60. 잠 23:10, 11 비교.)

질병을 겪게 된 욥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살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다네,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심을, 내 뒤에 오시어 흙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는 것을.” (욥 19:25. 시 69:18; 103:4 비교)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 자신의 본을 따라 그 나라의 낮고 불쌍한 이들을 위하여

구속자 역할을 해야 하였다.(시 72:1, 2, 14.)

**대속주인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인류에게 마련된 대속물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에덴에서 있었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대속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담은 이제 죄 많은 범법자가 된 아내와 계속 함께 있으려는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팔아 악한 일을 하여 하느님 앞에서 아내와 동일하게 정죄된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 아담은 자신과 자손을 죄와 죽음의 종 상태로 팔았는데, 이는 하느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가였다. (롬 5:12-19. 롬 7:14-25 비교)

아담은 인간 완전성을 소유했었으나, 자신과 자신의 자손 모두를 위한 이 가치 있는 소유를 잃은 것이다.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가 담긴 율법은 죄를 덮는 것으로서 동물 희생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상징적으로 혹은 명목상으로 덮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런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사도가 지적하듯이, “수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실제로] 없앨 수 없”었다. (히 10:1-4)

상징적인 동물 희생은 흠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였다. (레 22:21)

따라서 실제의 대속 희생 즉 죄를 실제로 없앨 수 있는 인간 역시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담의 자손을 빚과 무능력과 종 상태—그들의 첫 아버지 아담이 그들을 팔아넘긴 상태—에서 놓아줄 구속의 값을 지불하려면 그는 완전한 아담과 상응해야 하고 인간 완전성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롬 7:14; 시 51:5 비교)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영혼은 영혼으로”라는, 등가를 요구하는 하느님의 완전한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출 21:23-25; 신 19:21.)

하느님의 공의는 엄격해서 인류가 자체적으로 구속자를 마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 49:6-9),

하지만 이로 인해 하느님 자신의 사랑과 자비가 돋보이게 되는데, 그분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자신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셨던 것이다 (롬 5:6-8), 이 때문에 그분의 아들은 완전한 아담에 상응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였다. 하느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하늘에서 유대인 처녀 마리아의 태로 옮기심으로 이 일을 수행하셨다 (눅 1:26-37; 요 1:14)

예수의 생명은 죄인 아담의 후손인 어떤 인간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성령이 필시 마리아가 수태한 때부터 예수를 분만할 때까지 마리아를 ‘덮었’으므로, 예수는 죄나 불완전성을 조금도 유전받지 않은 채 태어났으며, 말하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그의 피는 받아들일 만한 희생이 될 수 있었다 (눅 1:35; 요 1:29; 벧전 1:18, 19),

예수는 생애 전체에 걸쳐 죄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셨으므로 자격을 잃지 않으셨다. (히 4:15; 7:26; 벧전 2:22),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는 인류의 가까운 친척이며 충절의 시험을 통해 순수하게 유지된 값진 것, 즉 그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소유하셨는데, 이것으로 인류를 도로 사고 해방시키실 수 있었다.(히 2:14, 15.)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 주듯이 죄와 죽음에서 놓이는 일은 반드시 값을 지불함으로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고전 6:20; 7:23), “자기들을 사신 주인”을 두고 있으며(벧후 2:1), 예수는 ‘살육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부족과 언어와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신’ 어린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계 5:9),

이런 구절들에서 아고라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시장

[아고라]에서 사다”이다. 관련된 단어 엑사고라조(사서 놓아주다)는 그리스도가 기둥에서 죽음으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서” 놓아주었음을 보여 줄 때 바울이 사용한 단어이다(갈 4:5; 3:13),

그러나 구속 또는 대속이라는 사상은 그리스어 리트론 및 그와 관련된 단어에 의해 더 자주, 더 온전히 표현된다.

그리스 저술가들은, 전쟁 포로를 석방할 때 또는 속박되어 있거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아줄 때 지불되는 값을 가리키는 말로 특히 리트론(“풀어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리오에서 파생)을 사용하였다 (히 11:35 비교),

이 단어는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많은 사람들과 교환하는 대속물”로 주는 것을 묘사한다(마 20:28; 막 10:45)

관련된 단어 안틸리트론은 디모데 첫째 2:6에 나온다. 파크허스트의 「신약 희영

사전」(Greek and 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에서는 그 단어가 “대속물, 구속의 값,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응하는 대속물”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히페리우스의 이런 말을 인용한다.

“그것은 적절하게도 포로를 적으로부터 구속하는 데 드는 값을 뜻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의해 구속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교환을 뜻한다.”

그는 이런 말로 결론 내린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으로 생명을 구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그 동사[안틸리트로오]를 사용한다.” (런던, 1845년, 47면),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상응하는 대속물로 주셨”다 (디첫 2:5, 6),

관련된 다른 단어들로는 “대속물에 의해 풀어 주다”를 의미하는 리트로오마이(딛 2:14; 벧전 1:18, 19)

그리고 “대속물에 의한 석방”을 의미하는 아폴리트로시스가 있다(엡 1:7, 14; 골 1:14),

이 단어들의 용법은 앞서 고려한 히브리어 용어들의 용법과 비슷함이 분명하다. 그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사거나 놓아주는 일이 아니라, 구속이나 대속, 또는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 결과에 따른 구출을 묘사한다.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이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위에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마련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저버리는 자들 위에 ‘하느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요 3:36; 히 10:26-29. 롬 5:9, 10 대조),

그들은 죄와 죽음이라는 왕들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구출을 얻지 못한다 (롬 5:21),율법 아래서 고의적인 살인자는 대속을 받을 수 없었다.

아담은 고의적인 행로로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으므로 살인자였다(롬 5:12) 그러므로 예수께서 희생하신 생명이 죄인 아담을 위한 대속물로는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한 석방을 활용하는 아담의 자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 대속물을 적용하는 것은 기쁘게 승인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기술한 바와 같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롬 5:18, 19)

아담이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그의 자손 또는 종족은 모두 그의 허리 속에 있고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모두가 그와 함께 죽게 된 셈이다 (히 7:4-10 비교)

완전한 인간 예수는 “마지막 아담”(고전 15:45)으로서 허리 속에 태어나지 않은

종족 또는 자손이 있었으며, 완전한 인간 희생물로 무고하게 죽었을 때 가망성 있는 이 인간 종족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는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으로 자신의 가족을 산출하는 일을 기꺼이 삼가셨다. 그와는 달리 예수는 자신의 대속물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사용하여 이 마련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전 15:45. 롬 5:15-17 비교)

그러므로 예수는 사실상 한 죄인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인 인류 모두를 구속할 “상응하는 대속물”이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로 사서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자신의 대속 희생의 온전한 가치를 하늘에 계신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하느님께 바침으로 그 일을 하셨다. (히 9:24)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신부 즉 자신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하늘의 회중을 얻으신다. (엡 5:23-27; 계 1:5, 6; 5:9, 10; 14:3, 4 비교)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역시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로서 “자손”을 두실 것임을 알려 준다(사 9:6, 7; 53:10-12), 그렇게 되려면 그분의 대속물은 그분의 “신부” 성원들만 아니라 그 이상을 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회중을 구성하도록 ‘인류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사신 바 된’ 자들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 대속 희생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른 불완전성이 제거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계 14:4; 요일 2:1, 2),

하늘의 회중에 속한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므로, 대속의 혜택을 받는 그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지상 신민일 것이며,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계 5:10; 20:6; 21:2-4, 9, 10; 22:17. 시 103:2-5 비교)

이 전체 마련은 공의의 저울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도 과분한 친절을 보이고 죄를 용서하는 일에서 여호와의 지혜와 의를 분명히 나타낸다(롬 3:21-26.)